**성가정 축일(2018년 12월 30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지난 주 우리는 구세주가 세상에 직접 내려 오셨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이고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 이야기였고,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행복해지기 힘들고, 또 잘 웃지도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좀 웃으세요. 얼굴에 미소도 좀 띄시고... 기쁘면 기쁜 척 좀 하시고, 행복하면 행복한 척 좀 하세요.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들보다 잘 나야 하고, 마음대로 안되는 일도 많고,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웃고, 기뻐하기 보다는 늘 심각하게 인상쓰고 삽니다.

새해에는 자주 그리고 많이 웃고 사십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찡그리고 인상 쓰는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이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좋아합니다. 인상쓰고 찡그리고, 심각한 사람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보다 많이 웃고 삽시다. 웃으면 진짜 행복해 집니다.

사는게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 될수록, 더 많이 자주 웃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행복해지고, 웃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 생활의 작은 것에서 행복은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많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성탄 대축일 후에 오는 첫번째 주일에 지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모든 가정의 모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죠.

오늘 성가정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장한 어른의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로 한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이 가정 안에서, 매일 매일, 하루 하루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증거입니다. 사람인척 사람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느님은 인간의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진짜 사람이 되셨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성지 순례때 보았습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작은 집을 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집에서 예수님은 30년을 평범하게 사시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성가정은 언제나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가정은 다른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사실, 이 가정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엄마는 처녀였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죠. 그리고 온갖 위협과 박해를 피해서 먼 이국 땅 이집트로 피난가서 살았습니다. 나자렛에서 이집트까지 수천 마일이 되는 사막 땅입니다. 그 당시 거기를 걸어서 갔을텐데, 수 개월에 걸쳐 갔을거고, 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거지처럼, 때로는 구걸도 하고, 노숙한 날도 많았을 겁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어서 늘 궁색하게 지냈을테죠.

집안도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은, 출생부터 미스테리였고, 신비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라는 일도 잘 안하고, 하라는 공부도 안하고, 늘 밖으로 쏘다니기만 하고,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고, 속 상당히 썩이는 자식이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부모 자식 인연 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가정은 언제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쳤습니다. 하느님의 알수 없는 계획에 불평 한마디 없이 늘 순명하며 삽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어떠했을까요? 힘들고 답답해서 때려쳐도 아마 오래 전에 때려 쳤을 겁니다.

늘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 친절과 겸손,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삽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장해 갑니다. 이 성가정 안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자신의 사명을 서서히 준비해 나갑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 하나가 하느님의 거룩한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넘어졌을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나자렛의 성가정을 거울삼아,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감당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 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면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웬수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지금, 나자렛의 그 작은 성가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일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메세지입니다.

‘행복한 성가정’ 이루세요!